

기업 사회공헌 ①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봉사단

年 3천여만원 예산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나서

매칭그랜트 모금제도 · 유급자원봉사제 도입 적극 지원



조용하 본부장 조미희 담당

우리사회에는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도 많다. 본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소기업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삶의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밝고 아름다운 사회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편집자주>

"다음 세대를 가꾸는 기업 한화, 다함께 행복하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 만들기, 바로 한화의 꿈입니다."

한화는 '칭찬 받는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2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화리조트 산정호수(본부장 조용하)는 2004년부터 경로효친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기어, 지역의

향토문화재 사랑실천의 지킴이 활동 등 세 개 분야로 나눠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이 요구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임직원들이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한화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라는 선진모금 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이 기부하는 금액의 100%를 회사가 부담하다가 2004년부터는 150%로 확대하여 더 많은 모금액을 조성하여 임직원과 회사가 한마음 한 뜻으로 정성껏 마련한 모금액 '밝은세상 만들기 기금'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조용하 본부장은 "이제 사회공헌도 단순히 기부금을 지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실질적 혜택도 제공하고 봉사자 자신도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깨닫는 참여적 파트너쉽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화는 수혜자의 실질적 복지 서비스 혜택과 임직원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상 결점적 차질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유급자원봉사제를

도입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로효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온천수를 이용한 목욕봉사, 노인회에 소화기를 기증해 화재발생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인회를 초청해 식대를 대접하기도 했다. 또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보행기를 기증하고 장애인 보호장구 지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역주민 및 기관을 위한 활동으로 6·25참전유공회 회원과 전국미방인협회 회원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운전육을 제공하며, 지역유관기관은 물론 수해피해지역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때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월1회 일동초등학교 장애우를 대상으로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리조트 차량을 이용해 학생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켜줌으로써 단체생활에 의한 사회적응력 및 공동체 의식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월1회 노아의 집 시설장애 아동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사회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장애아동들이 사회적응과 정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갯벌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아동들이 정상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의 향토문화재 사랑실천의 지킴이 활동으로 월1회 사적 제 403호 반월성지와 문화재자료 제 16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포천향교의 문화재 관리 및 보호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노아의 집을 2년째 월1회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봉사단의 실무를 맡고 있는 조미희씨는 "노아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애아동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글씨를 모르면 아들이 글씨를 익히고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봉사의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40

주신정밀 · 주신포장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만능 기술자



대표 손주환

'하면 된다'라는 사훈아래 선반·밀링가공·호이스트·기계제작 수리와 알콘·CO2 프라즈마 등 용접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주신포장·주신포장(포천시 내촌면 내리 311-2, 대표 손주환), 기계제작과 수리·용접 등을 약 25년 정도 다루어온 손 대표는 지난 97년 현 위치에 개업한 이후 고객들로부터 성실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알토란같은 업체다.

손 대표가 지역에서 주신포장을 운영하면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아가는 많은 우여곡절

견적에서 제품 완성까지 고객의 의견 반영

정교한 기계제작 · 철저한 A/S가 고객 확보

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손 대표가 사회에 진출 할 시기에는 무언가 한가지 기술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각종 기계제작과 수리에만 전념을 해왔다고 한다.

10여 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매화동에 소재 한 공장을 임대해 첫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겹쳤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제 1년도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임대료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였다.

손 대표는 여러 고민 끝에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품고 아픔을 뒤로 한 채 현 소재지로 이전해 전력을 재정비하고 기틀을 마련해 재기의 물꼬를 텄다.

성실함과 기술력을 무기 삼아 고객 확보에 노력한 결과 고객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로 운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전 공장에서 밀렸던 임대료도 갚을 수 있었고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주신포장은 대다수의 고객들과 약 50여 업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기계제작에 수많은 노하우와 24시간 철저한 A/S가 고객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10여 년 넘게 이 곳에서 업체를 운영해오며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기계제작과 사후 관리에 많은 노력을 했다. 고객들의 매출에 기여하기 위해 가격은 저렴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여왔다"며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지역 주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주어진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 주신포장 바로 옆에 위치한 주신포장은 손 대표의 사모님이 운영하고 있다.

장갑·테이프·작업복·안전화·포장재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알뜰한 운영을 하고 있다.

업무에 바쁜 나머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산

악용 자전거와 싸이클을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다. 싸이클을 좋아하게 된 동기는 현재 경북중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아들(손재우)이 싸이클 선수로 대회를 나가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뒷받침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역을 위해 현재 내촌면 이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 대표는 차후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의) 031)531-0346 HP 011-786-9185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하면 된다'라는 사훈아래 선반·밀링가공·호이스트·기계제작 수리와 알콘·CO2 프라즈마 등 용접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주신포장·주신포장.

행복한 보험이야기 7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

보험에 대한 인식으로 주요 질병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으로 2006년 서울삼성병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종 질병 중 암을 가장 많이 걱정하며 남성 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일 평균 암으로 172명, 뇌혈관질환으로 102명, 심장질환으로 49명이 죽어가고 있다. 암 48.9%, 뇌졸중 및 뇌혈관 질환 21.8%, 심장질환 17%, 당뇨병 4.1%, 기타 8.2%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암환자들이 부담하는 표준 치료비로 180일을 기준삼아 간암 4.140만원, 위암 2.400만원, 폐암 1.920만원, 유방암 1.500만원, 대장암 1.1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특진료, 초음파, MRI, 간병비, 회복비, 교통비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암이란 녀석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정상세포의 증식과 역제가 잘 조절 되어야 하는데, 돌연변이에 의하여 비정상세포의 과

다한 증식을 만들고 주위조직에 장기 침입함으로써 종괴(덩어리)를 형성하여 정상조직의 파괴를 가져옴으로 암으로 발생하게 된다. 암에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경계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은 악성종양을 말한다. 양성종양은 성장속도가 느리고 주변조직을 침범 안하며, 정상조직과 잘 분리된다. 수술 후엔 재발이 거의 없다. 그러나 악성종양은 성장속도가 빠르며 주변조직을 침범하고, 정상조직과 분리가 안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경계성종양이다.

암 중의 간암이란 녀석은 B형 및 C형 간염바이러스의 감염이 주요 원인이며, 부패된 땅콩, 옥수수 등에 피는 아스페루길루스라는 곰팡이에 존재하는 아플라톡신 B1이라는 발암물질의 섭취로도 키워진다. 알코올성 간염과 간경변/간경화가 간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간암의 증상으로는 상복부의 통증, 복부팽만, 체중감소, 피로

감, 소화불량이며 증상의 대부분 증기이후에 서서히 나타난다. '침묵의 장기'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6개월에 한번 씩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간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로 우측 상복부, 오른쪽 젖가슴 아래에 있는 갈비뼈의 안쪽에 위치하며 1,200~1,500g의 무게를 나타낸다.간의 주요 임무로는 해독 작용과 살균 작용을 한다.

다음으로 위암이란 녀석은, 남자 26%, 여자 16%로 국내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위암은 불규칙한 식사습관, 유해물질 섭취(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발암물질), 맵고 짜고 뜨거운 음식 섭취 등이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주요 원인이라 한다. 위암의 증상은 명치주위가 더부룩하고 소화 잘 안되며, 식욕 또한 부진하다. 위염이나 위.십이지장궤양과 증상이 비슷하여 좀처럼 조기 발견이 늦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위암 환자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폐암은 90%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이 압도적이다. 폐암의 증상으로 초기증상이 거의 없고, 중기증상으로 기침, 객담, 호흡곤란, 객혈... 심해지면 통증과 쉼 소리, 얼굴 부종으로 나타난다.

유방암은 40대가 가장 높은 발생빈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유방암의 주요 원인으로 BRCA1과 BRCA2 유전자가 변이 발생 시 가족 유전이라 한다. 식습관으로 동물성지방 과잉 섭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적 요인으로는 12세 의 초경, 55세 이후의 폐경 여성에게 발생빈도가 높다고 나와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미정 금호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저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자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받은 자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 산출세액의 20%(또는 4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상당하는 무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45일 이내에 분납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납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③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자료와 예정신고 자료 등을 전산으로 대사하여 확정신고대상자를 가려낸 다음 신고안내문을 보내 주고 있다.

따라서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대상자로 분류한 자이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4과 8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필름 점착액 제조과정 중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재해발생 개요

0000년 4월 6일 (금) 13시경 경기도 소재 인쇄 점착액 제조 작업장에서 필름 점착액을 제조하던 중 배합기에 점착액, 염료 및 MEK를 일정량 계량·투입한 후 일정량의 불루엔을 투입하던 중 화재가 발생함.

▶동종 재해 예방대책 가. 정전기에 의한 화재방지 조치 실시

• 위험물이 배관으로부터 이동용 용기에 투입될 때 마찰 정전기 및 유증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유속 및 낙차를 최소화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을 지



장·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작업장에는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는 등 안전거리 확보 철저(최소 20m 이상의 거리 확보).

나. 화재에 대비한 대피훈련 실시
• 화재 또는 폭발 등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훈련 실시.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626-6091)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소득상실 위험 국가 차원에서 해결

88년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처음 시행

국민연금제도는 장애, 사망, 퇴직 등 개인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소득상실위험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걷어놓았다가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장애, 사망, 노후에 일정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60세를 전후로 은퇴한 후에도 보통 20~30년 이상씩은 더 살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재원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지 않을 경우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요즘은 전통적으로 부모 부양책임이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기댈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생애주거의 한 형태가 된다. 그러나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소득재분배와 보험적 요소가 가미된 강제저축이다.

국내에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후 1995년 농어촌지역 주민, 1999년 도시지역 주민,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한 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저부담 고급여의 논란이 피어왔던 국민연금 급여체계가 2007. 7월 국민연금법 개정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은 하향조정하여 소득대체율이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낮추어 2028년에 40%가 되도록 하였다. 결국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책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 따라서 은퇴 이후 자신이 희망하는 월수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기업연금) 등 부가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추가돈 모으기가 어렵고 자금관리능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충분한 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저부담 고급여의 논란이 피어왔던 국민연금 급여체계가 2007. 7월 국민연금법 개정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은 하향조정하여 소득대체율이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